

멕시코의 석유정책

1. 머리말

현재 멕시코의 原油생산량은 이라크에 이어 세계 6위 규모로 알려져 있다. 또한 수출량도 세계 6위로서 국제석유정세에 미치는 영향력은 「OPEC의 14번째 국가」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컸다.

그러나 최근의 原油생산량감소는 그러한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다. 원유생산량은 1984년의 276만b/d를 피크로 감소경향을 보여, 1988년엔 251만b/d로 피크時 보다 10% 감소하였다.

생산량 감소의 원인은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 온 탐사·개발·투자의 정체에 있다. '87년엔 총 1억7,200만 달러의 투자로 18건의 유전개발 및 탐사용설비공사가 완성됐는데, 이는 '82년(3억4,200만달러)의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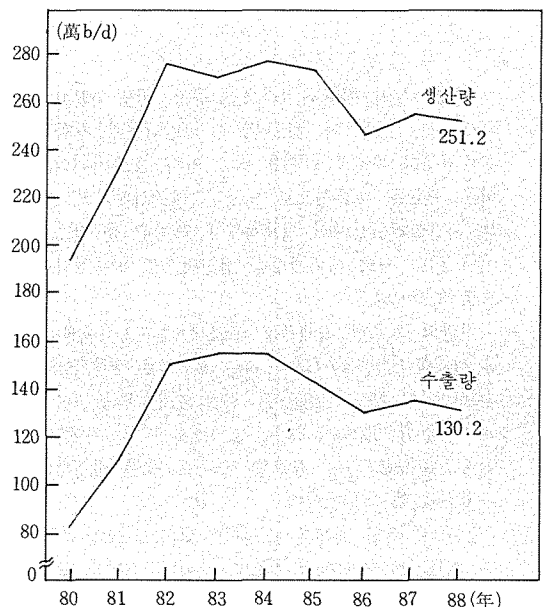
과거 5년간 멕시코의 석유개발은 1984년 8월에 발표된 「국가에너지 자원계획 1984~1988」에 의거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서는 '88년까지의 5년간에 探査井 400개(80개/년), 개발정 1,000개(200개/년)의 굴착이 실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84년부터 '87년까지 4년간에 탐사정 223개(목표의 56%), 개발정은 701개(70%) 수준에 머물러 목표를 크게 밀돌고 있다. 특히 '87년엔 전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작년까지의 목표달성은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확인매장량(천연가스 제외)도 '84년초의 571억배럴에서 '88년 초에는 541억배럴로 감소하고 있다. 원래 멕시코정부가 공표하는 멕시코의 석유매장량

은 크게 불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정부공표계수에서도 감소사실을 은폐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지역별로 보면 특히 캄페체탄 지역에서 감소경향이 눈에 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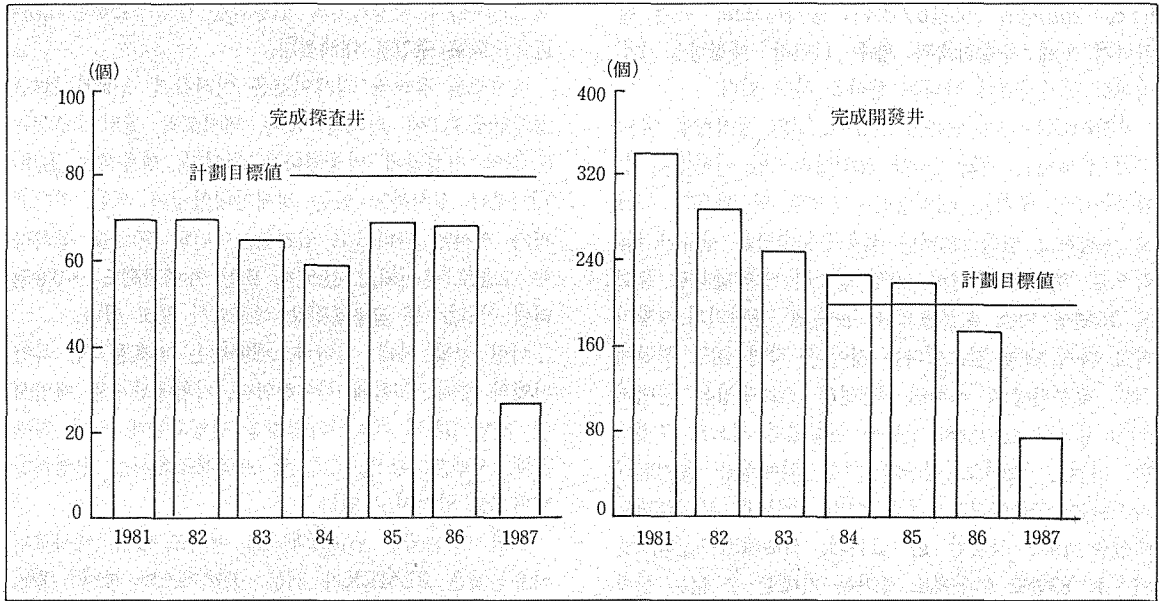
캄페체탄의 6개유전은 멕시코 원유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수심이 낮고 沿岸으로부터의 거

〈그림-1〉 멕시코의 原油생산량 및 수출량



〈資料〉 PMI各號,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1987

〈그림-2〉 探査井 및 開發井掘鑿數



리도 가까와, 세계에서도 경제성이 높은 해안유전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재정난 때문에 그 후의 개발은 거의 진전되지 않고 있다. 또한 육상유전의 대부분은 10년 이상이나 이전에 생산개시된 영세유전으로, 1 유정당 생산량은 230b/d이고 自噴井은 전체의 40%

에 불과하며 비효율적이어서 생산성이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정의 수리등을 위한 부담이 PEMEX의 재정상태를 압박하고 있어서 신규 유전개발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멕시코석유연구소는, 멕시코의 국내에너지소비가

〈表-1〉 지역별 확인매장량(天然가스 제외)

(單位: 백만배럴, %)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북부	727	658 (△ 9.5)	649 (△ 1.4)	677 (4.3)	680 (0.4)	703 (3.4)
중부	13,858	13,722 (△ 1.0)	13,682 (△ 0.3)	13,660 (△ 0.2)	13,629 (△ 0.2)	13,569 (△ 0.4)
남부	10,696	10,697 (0.0)	10,264 (△ 0.4)	10,183 (△ 0.8)	10,110 (△ 0.7)	9,980 (△ 1.3)
해양	31,718	32,019 (0.9)	31,815 (△ 0.6)	31,073 (△ 2.3)	30,452 (△ 2.0)	29,858 (△ 2.0)
計	56,999	57,096 (0.2)	56,410 (△ 1.2)	55,593 (△ 1.4)	54,880 (△ 1.3)	54,110 (△ 1.4)

〈資料〉 PEMEX 各年度사업보고서

〈註〉 • 各年初 현재

• 중부에는 치컨테펙 油田群포함.

• () 内는 전년비

석유환산으로 현재의 233만b/d에서 2000년에 370만 b/d, 2010년엔 590만b/d까지 증가하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 수출감축과 향후 11년간 매장량을 125억배럴 증가시켜야 한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PEMEX는 2000년까지 200만b/d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 2년간 40억달러/년 이하였던 상류부문의 투자를 64억달러/년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수출수입은 원유가격급락으로 '86년엔 전년비 60% 감소한 54억달러로 줄었고 '87년엔 다소 회복됐으나, '88년엔 후반기의 시황악화로 다시 대폭 감소했다는 것이다. 작년 10월 시점에서의 정부전망에 의하면, '88년의 石油수입은 전년비 50% 감소한 40억달러 정도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88년도 예산의 석유수입예상을 20억달러 하회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미 PEMEX의 '88년도 예산을 19% 삭감한 바 있는데, 石油輸出수입감소를 이유로 '89년도 이후에도 증가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처럼 현재는 자원부족 때문에 개발투자 축소가 불가피해서 결국 생산침체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멕시코의 유전은 이미 피크가 지난 것이 많아, 원유생산량은 향후 수년동안 25~50만b/d 감소할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게다가 국내소비 증대에 의한 석유수출감소가 재정을 압박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려 하고 있다.

또한 「原油價格이 1달러 하락함으로써 외자수입이 5억달러 감소한다」는 말처럼, 멕시코 경제는 국제석유시황동향에 큰 영향을 받아, 장기적인 석유개발계획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PEMEX 개편에 고심하는 신정부

작년 7월의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카루로스 사리나스 데고르타르가 데라마드리 前大統領의 뒤를 이어 지난 12월 1日 새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멕시코의 石油政策에 큰 변화가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新任대통령이 PEMEX의 개편·효율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前政權의 기획예산장관이었던 사리나스가 이끄는 신정부는 기본적으로는 데라마드리 노선을 답습하여, 비

축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운영을 계속하게 되지만, 취임하자마자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중심으로하는 經濟近代化政策 추진을 내세웠다.

멕시코를 둘러싼 경제여건은 어려워져 유엔의 '88년 경제잠정보고에 의하면 '88년 멕시코의 실질 GNP는 0.5%의 저성장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87년 1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경제연대협정에 의한 억제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70%를 상회하는 고율로 추이되고 있으며, 또한 外債殘高도 970億달러에 이르는 등 금융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 아래, 사리나스대통령은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의 정리·통합에 착수하였다. 기획예산장관 재임시인 '87년 5월에 메히카나공항을 민영화한데 이어, 砂糖정제, 시멘트, 광산, 버스 및 트럭제조회사를 민영화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그 파급은 石油産業에도 미치고 있다. 멕시코의 석유산업은 PEMEX가 石油·天然가스의 탐사, 개발, 생산에서부터 정제, 수송, 판매, 그리고 石油化學産業에 이르는 광범위한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 그 규모는 국가수입의 40% 이상, 공적지출의 25%, 수출수입의 40%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멕시코 경제동향을 좌우하고 있다. 따라서 사리나스대통령에게 있어서 PEMEX의 개편 및 효율화는 경제근대화정책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PEMEX 개편 움직임을 계기로 정부와 石油勞組가 충돌하게 되었다. 지난 1月 10日, 멕시코 경찰은 PEMEX노조의 최고간부 호아킨 에르난데스 가리시아외에 간부 48명을 총격전 끝에 무기밀수 혐의로 체포하였다. 이에 반발한 石油勞組는 항의태도와 무기한 파업으로 대항, 캄페체灣 동부 유전지대의 타마우리파스, 베라쿠르스兩州를 중심으로 국내 3분의 2에 해당하는 6개精油工業 및 8개 석유화학관련시설에서 파업에 돌입하여, PEMEX 전체 기능은 차츰 마비되어 갔다. 또한 파업후 주유소에 시민들이 쇄도하자, 휘발유의 공급제한이 실시되는 등 국민생활에도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 멕시코경제는 한때 에너지위기의 불안에 빠졌었다.

그러나 장기화가 우려되었던 무기한파업은 3일간으로 끝남으로써 큰 혼란은 야기되지 않았으나, PEMEX는 4만명의 인원감축계획을 발표, 주요시설에는 勞組의

습격에 대비해서 군이 경계에 임하는 등 사리나스정부와 石油勞組間에는 긴장상태가 계속되었다.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사리나스대통령과 石油勞組의 장기간에 걸친 대립관계가 있다. 石油勞組는 그 거대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여당인 制度革命黨(PRI)을 지원하는 한편, 파격적인 특권을 향수하여 거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데 체포된 에르난데스는 PEMEX의 「막후의 經營者」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은밀하게 PEMEX의 분해·민영화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리나스대통령은 기획예산장관 시절부터 石油勞組의 특권을 하나씩 박탈하여 에르난데스와의 대립은 심화되어 왔던 것이다.

또한 사리나스대통령에게는 에르난데스 체포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사리나스대통령은 선거에서 승리는 했으나, 득표율이 50.4%(76년 포르테이요대통령 선출시 94.4%, '82년 테라마드리대통령 선출시 74%)로 PRI 사상 최저였으며, 야당측으로부터는 부정선거라고 규탄을 받았다. 「민영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파업으로 대항한다」는 자세를 보였던 노조측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나온 것은, 국민의 비판이 강했던 PEMEX 내부의 부패에 메스를 가함으로써 「매우 강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 문제는, 石油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멕시코의 경제구조를 고려하면, 사리나스정부가 향후 석유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회피할 수 없는 문제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表-2〉 멕시코의 石油輸出收入

(單位：백만달러, %)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石油 수출	10,413	14,574 (40.0)	16,595 (13.9)	16,165 (△2.6)	16,466 (1.9)	14,606 (△11.3)	6,145 (△57.9)	8,476 (37.9)	- (-)
石油 수입	766	683 (△10.8)	551 (△19.3)	600 (8.9)	797 (32.8)	1,059 (32.9)	685 (△35.3)	447 (△34.7)	- (-)
純輸出收入	9,647	13,892 (44.0)	16,044 (15.5)	15,565 (△3.0)	15,669 (0.7)	13,546 (△13.5)	5,460 (59.7)	8,029 (47.1)	*4,000 (△50.2)

〈資料〉 PEMEX 各年度 사업보고서

〈註〉 • '88년은 멕시코정부 전망

• () 内는 전년비

3. 시급한 개발투자 촉진

작년 11월에 개최된 OPEC(석유수출국기구) 총회에서 신규생산쿼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사리나스대통령 취임과 때를 같이 해서 油價가 급속한 회복세를 보여, 멕시코에 있어서는 낭보가 되었다. 멕시코는 1월 26일에 개최된 OPEC·非OPEC 합동회의, 그리고 2월 21일의 非OPEC 전문가회의에서 협조감산실시를 표명하여, OPEC를 지원할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勞組와의 대립문제에 있어서는, 노조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카브레타서기장의 지도 아래, 평온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사리나스대통령에 있어서 석유산업재건을 위한 여건은 갖추어져 가고 있는 셈이다.

멕시코정부는 「1993년까지 국내소비량이 수출량과 동량인 150만b/d 수준까지 달하게 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생산능력을 330만~350만b/d까지 확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발표하였다.

현재의 생산능력을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생산의 주력이 되고 있는 캄페체灣 지역의 탐사·개발이 급선무라 하겠다. 캄페체灣의 유전군은 유층의 침투율이 높고 광맥이 두터워 생산개시 직후의 생산량은 높지만, 피크

를 지난 후의 생산감소는 현저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미 생산개시후 10년 가까이 되고 있어서 향후 2차·3차에 걸친 원유회수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멕시코 국토의 5분의 4는 퇴적지층으로, 그 중 절반 이상이 유망지로 알려지고 있어 미탐사 지역은 많다. 石油가 발견되고 있는 캘리포니아반도를 위시하여 할리스코주, 코리마주 등 탐사활동이 진전되지 않았던 태평양연안지역에 거는 기대는 크다.

사리나스대통령은 PEMEX의 재정기반 재건에 의한 石油부문 활성화에 의해 同社의 활용자금 취득을 도모할 것을 공약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려 하고 있는 同社의 개편과 효율화만으로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역시 어떤 형태에 의한 외자도입이 필요해질 것이다.

정부는 현재 공식적으로는 「PEMEX는 민영화하지 않는다」고 표명하고 있으나, 石油化學분야에 있어서의 민간기업과의 합병사업화 움직임이 있는 등 민간부문

과의 유대를 강화하려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외국자본의 진출을 규제하고 있는 外資法(73년 제정)을 자유로운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언명하고 있다. 종래 멕시코는 外國石油資本의 진출을 완강히 거부해 왔으나, 생산감소가 우려되는 현재 적극적인 외자도입을 검토할 시기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0년대초, 당시의 포르테이요대통령은 石油輸入國으로의 전략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석유대책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멕시코는 생산물을 대폭 증대시켜, 大産油國으로 다시 부활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멕시코경제를 과도한 石油의존구조로 변화시켰던 것이다.

사리나스대통령의 경제근대화정책에, 이러한 경제구조에서부터 탈피하여 산업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얼마나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그 일환으로서의 石油長期計劃이 어떤 방침 아래 추진되어 갈 것인가 注目되는 바 크다 하겠다. □ <주간석유뉴스>

□ 석유단신 □

北海 석유파업, 새로운 장애요인으로 부상

지난 5월말 이후 6주간 계속되어온 英國 北海유전 계약근로자 파업사태는 국제석유시장의 장세흐름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향후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을 더해주는 또 하나의 장애요인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北海유전파업사태는 지난 5월 20일 BP社의 Forties 유전에서 약 300명의 계약근로자들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들 파업근로자들은 BP社가 하청을 준 Press Offshore社에 3년간 기간고용된 근로자들이었다. 당초 이들의 요구조건은 임금인상으로 종전 건설기간 중 적용되던 임금률인 Hook-up Rate (12.25\$/hr)을 주장하였으나, PO社는 지난 3월, 10%의 임금인상에 합의, 근로자들의 반발로 그동안 계속 분규가 이어져 왔다.

Forties유전에서의 파업사태는 타유전(Brent, Ninian,

Claymore, Montrose, Cormorant 등) 계약근로자들의 산발적인 동조파업으로 이어지면서 총 9개 유전, 35개 플랫폼으로 확산되었다. 이와 함께 북해유전 계약근로자 노조는 개별기업이 아닌 전 유전사업(Oil Industry-wide) 일괄타결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BP, Shell, Chevron, Mobil社 등은 이번 계약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생산활동에 큰 지장은 없었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는 이들 파업근로자들이 BP社가 직접고용한 생산직 근로자들과는 구별되며, 이번 파업이 대부분 유전에서의 하계 정기보수기간중에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파업이 성수시기의 생산기간중 발생하거나 또는 생산직근로자에게까지 파급된다면 국제석유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여 석유공급시장의 새로운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